Berl. W. 8
95 Dup
DUPLICATE
DIVISION OF ORIENTALIA
10
06-0730
WF22

당의 부름 따라 새 승리를 향하여

안 창수 그림

화살

1961년 10월호 (147)

새 고지 향하여 앞으로!

갑—여보게

을—왜 그러나

갑—다른게 아니라 이번 당 대회 결정을 받들구 보니 말이야

을—어이구 말두 말게 지난 밤 한 잠두 못 잤네 막 가슴이 뿌듯해져서

갑—아 글쎄 공업 생산에서 일제 때의 20배라니 얼마나 굉장한 발전인가 말일세

을—그래 지금 막 야단 들이라네

갑—왜

을—저마다 전투 태세를 갖추고는 철파 기계 어서 앞서라고 들이 독촉이거든

갑—념려 말게 내 250만 톤의 강철 250만 톤의 선철과 립철을 문제 없이 보장할 테니 자네는 어서 일이나 헐하게 만들게

을—뭐, 일을 헐하게?… 자네 아직 그 버릇 못 놨구만. 다시는 그런 매맞을 소리말게

갑—매를 맞다니? 현대적 기계 설비를 생산 공급해서 모든 공장을 기계화 자동화하구 화학화까지 해서 스웨치 하나로 조종하자는 전데 때리긴 누가 때려

을—그만하면 알겠네 알겠어 사람두… 우리의 어머니 당에서는 인민 경제 각 전선 사령관들에게 전투 명령을 내리구 있지 않나…

갑—아무렴, 전기 사령부는 수력, 화력 발전소를 옳게 배합하여 170 억키로왔트시의 발전량을, 화학 군단은 170만 톤의 화학 비료, 9만 4천톤의 화학 섬유를 비롯한 각종 화학 제품을 생산하며 이미 천만 톤 계선에 다달은 석탄 장군은 공업의 밥 2천 5백만톤을 지체 없이 공급할 것

을—황금'벌에서 싸우고 있는 농촌 부대들은 이악스럽게 달라붙어 기어이 량곡 660만 톤 고지를 점령할 것이며 50만 정보의 새 땅을 정복하고 그것을 사수할 것

갑—어로 군단은 대 선박을 선두로 중소 선박 총 동원하여 멀리 가까히, 깊은 곳 얕은 곳 살살이 정찰하여 적 장군 고래는 물론 큰 고기 작은 고기 모조리 생포함으로써 120만 톤 고지에 만선기 휘날리게 할 것

을—경공업 집단군에서는 직물 5억 메터 무지개 고지를 점령하고 새 전투 명령을 기다릴 것이며 일용품과 식료품의 품종을 확대하고 그의 질을 세계적 수준으로'높일것

갑—쎄멘트는 강철 부대와 긴밀히 협동하여 각 건설장에 출선 참가함으로써 온 천지를 공장의 그물로 뒤덮게 할 것이며

도시에 60만 세대, 농촌에 60만 동의 문화 주택 건설을 보장하여 웅장한 도시와 아담한 마을들이 이 땅을 아름다운 강산으로 수놓게 할 것

을—이렇게 해서 사회주의 승리봉에다 굉장한 전당을 세우는데

갑—전당을? 얼마나 크게 짓나?

을—수용 인원이 천만하구두 좀 넘어

갑—(입을 딱 벌리고)뭐—?!

을—이 사람 천리마 기수들이 저마다 자기의 열매를 전시할 판인데 누구를 빼 놓겠나.

갑—하긴 그래…

을—전당의 문이 쩡하구 열리면 천리마 기수들과 80만의 기술자 대군을 선두로 왈랑절랑 개선 장군들이 모여 드는데 내가 건설한 대야금기지와 자네가 새로 만든 대형 기계, 정밀 기계, 그리고 각종 계기 전자판 약전 기계들이 척척 걸어 나오며 첫 인사를 하거든

갑—야 거 으쓱한데

을—그러자 세계 제 1등 급을 대표하여 여러 분들을 축하합니다 하구 대화학 기지가 위용을 떨치는데 고급 옷감과 값싸고 맵씨 있고 쓸모 있는 일용품, 열이 먹다 아홉이 죽어도 모를 식료품들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와 전당을 아름답게 수 놓구

갑—황금 파도 물'결치고, 오곡백과 무르익어 절경을 이루구

을—이렇게 어마어마한 전당에서 잔치가 막 벌어지는데

갑—아니 잔치라니?

을—텔레비존과 까스까지 들어간 고대 광실에서 호화 찬란한 옷차림을 하고 때마침 90 환갑 잔치에 60 청춘 모임이 한창인데 끼리끼리 얼싸안고 진수성찬을 빙빙돌며 춤을 추더란 말이야.

갑—야 거 꿈에 나오는 호화판이 거기 있었구나

을—그게 바루 꿈이 아니라 멀지 않아 다가올 우리들의 생활이라네

갑—그러니 우리의 앞길이 얼마나 휘황 찬란한가

을—그러기 추호도 자만하지 말구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라구 하잖나

갑—아무렴, 그래서 우리가 당면한 여섯개 고지부터 점령하자는 게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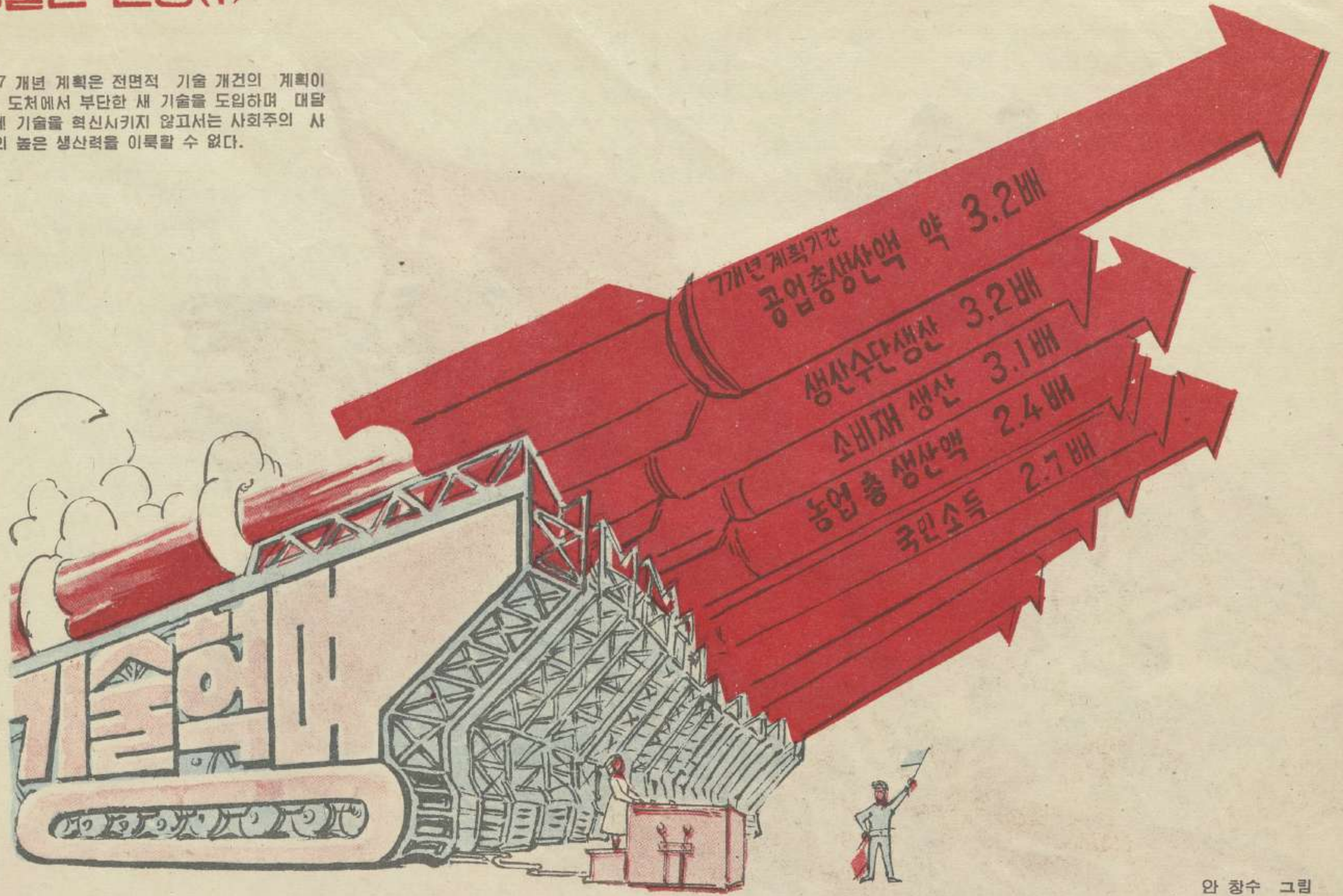
을—점령해야지!

갑. 을—(합창)당의 부름 따라 새 고지 향하여 앞으로!

그림 김 성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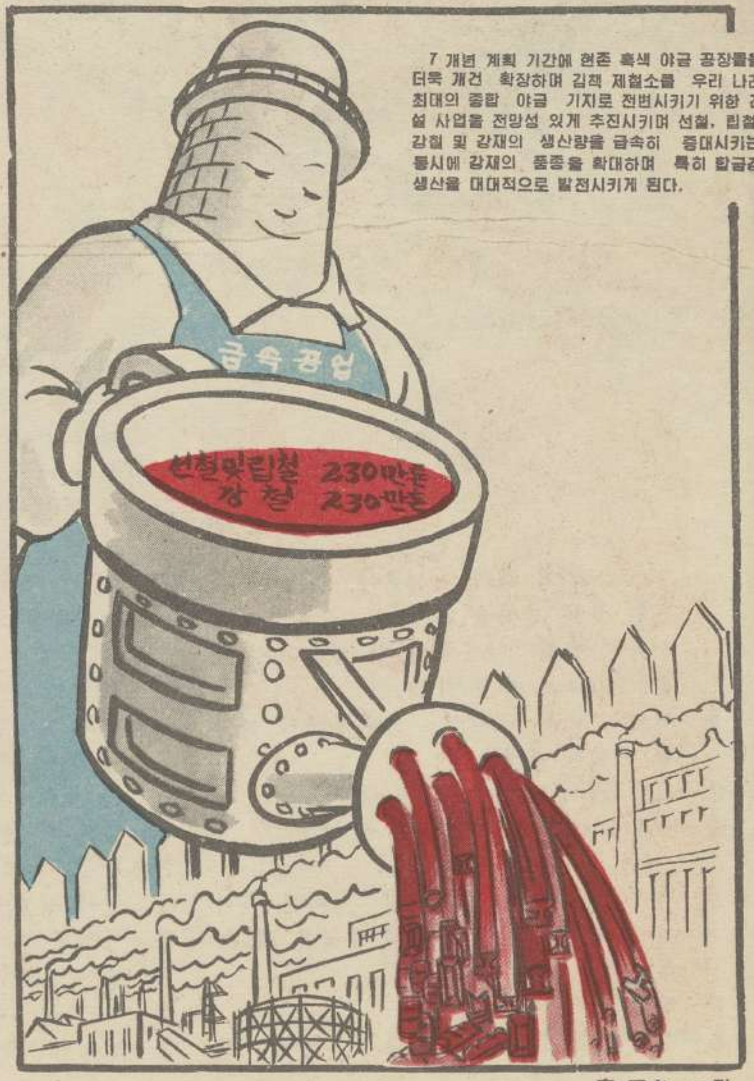
광활한 전망(1)

7 개년 계획은 전면적 기술 개건의 계획이다. 도처에서 부단한 새 기술을 도입하며 대담하게 기술을 혁신시키지 않고서는 사회주의 사회의 높은 생산력을 이룩할 수 없다.



안 창수 그림

7 개년 계획 기간에 대규모적인 수력 발전소들과 함께 새로 많은 화력 발전소들을 건설하여 200만 키로왓트 이상의 발전 능력을 더 조성함으로써 총 발전 능력을 330만~350만 키로왓트로 확장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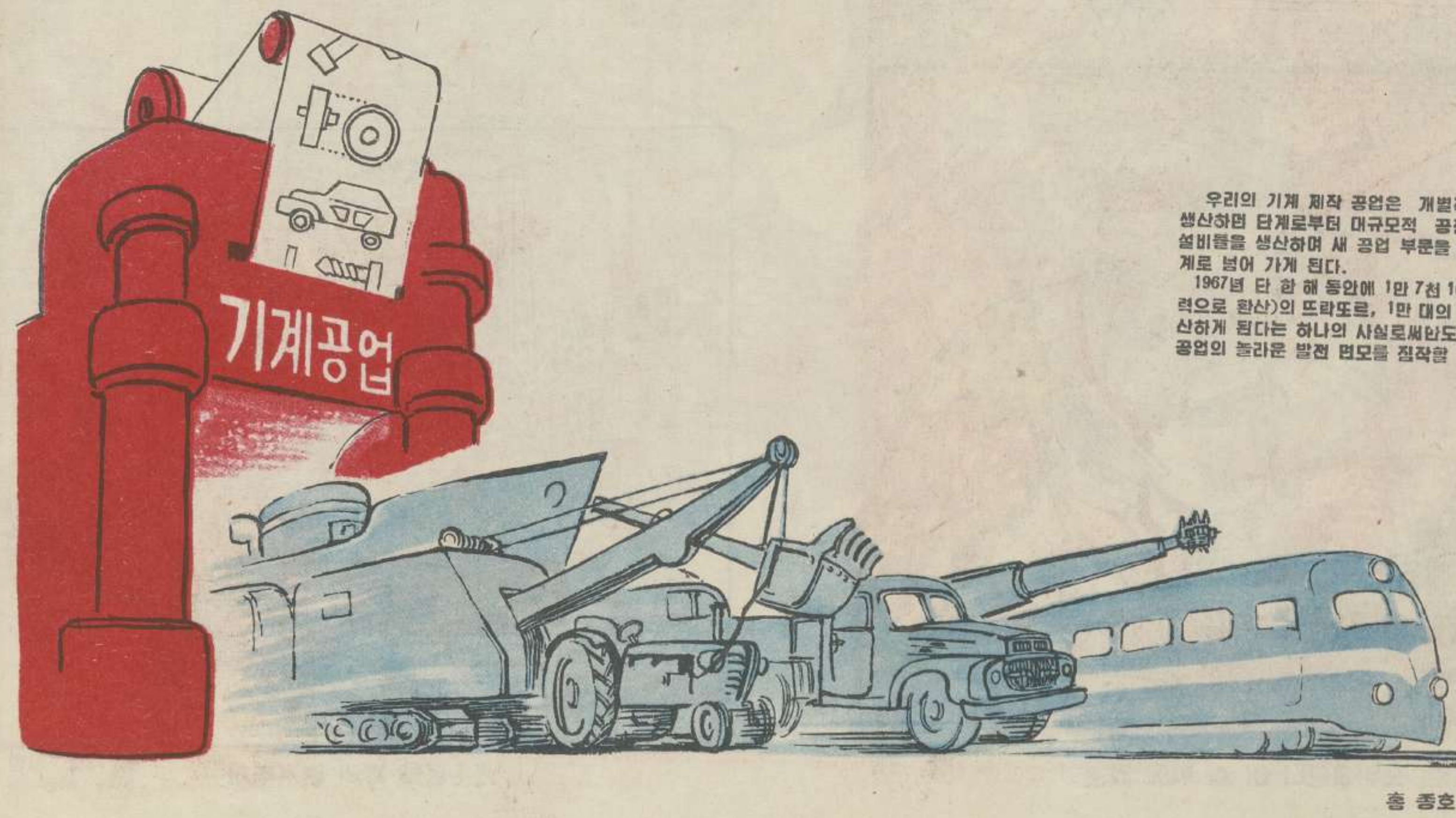


7 개년 계획 기간에 현존 흑색 야금 공장들을 더욱 개건 확장하며 김책 제철소를 우리 나라 최대의 종합 야금 기지로 전변시키기 위한 건설 사업을 전망성 있게 추진시키며 선철, 립철, 강철 및 강재의 생산량을 급속히 증대시키는 동시에 강재의 품종을 확대하며 특히 합금강 생산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게 된다.

홍 종호 그림

7 개년 계획 말기에 가서 석탄 생산량을 2,300만~2,500만 톤으로 증대시키며 광업 부문에서는 기존 광산들을 더욱 확장하고 그 기술 장비를 개선하며 새로운 광산들을 더 많이 개발해야 한다.

우리의 화학 공업은 인민 경제의 기술적 진보를 촉진시키고 국내의 자원을 다각적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공업의 원료 기지를 튼튼히 축성하는 방향에서 전면적으로 발전하며 원유 가공 공장, 합성 고무 공업이 새로 창설될 것이다.



우리의 기계 제작 공업은 개별적 기계들을 생산하던 단계로부터 대규모적 공장의 종합적 설비들을 생산하며 새 공업 부문을 창설하는 단계로 넘어 가게 된다.

1967년 단 한 해 동안에 1만 7천 100 대 (15 마력으로 환산)의 뜨락또르, 1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게 된다는 하나의 사실로써만도 기계 제작 공업의 놀라운 발전 면모를 짐작할 수 있다.

홍 종호 그림

광활한 전망(2)

김 성엽 그림

선녀 (1)—여기가 바로 지상 락원이로구나…
선녀 (2)—우리도 여기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가…

경공업의 가일층의 발전에 따라 7 개년 계획 말에 가서 직물 생산량을 5억 메터, 종이 생산은 25만 톤으로 장성하고 일용품 생산과 식료품 가공 공업도 대대적으로 발전할 것이며 품종이 더욱 확대되고 제품의 질은 선진 국가의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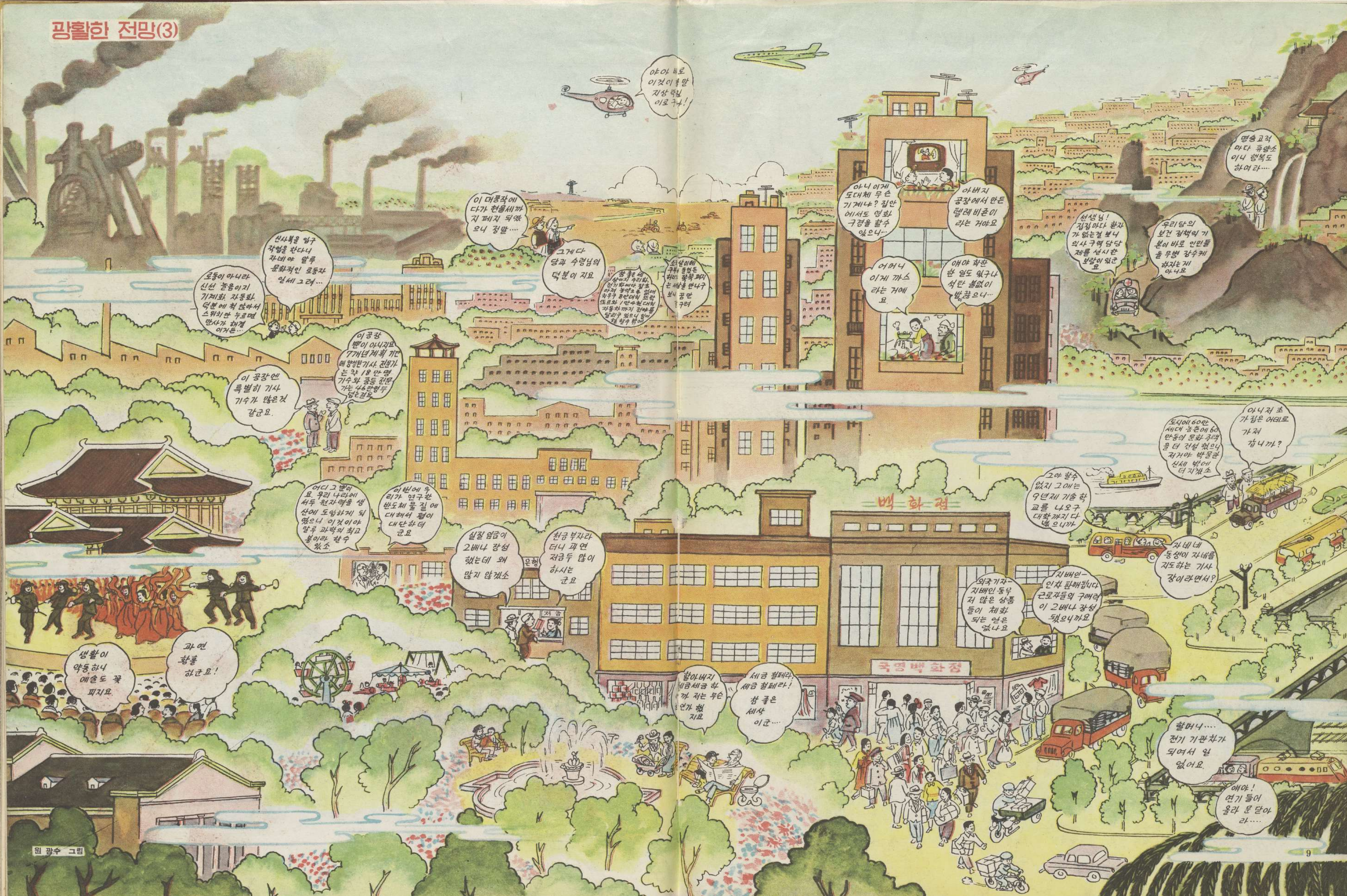
—사면 포위됐으니 이 길 밖에 없군… 송 시엽 그림

—계주봉을 빨리 넘겨주게… 송 시엽 그림

우리의 농촌에서는 수리화의 성과가 더욱 확대 공고화되고 기계화가 실현되여 8만 대 (15 마력 환산)의 뜨락또르와 1만 4천 대의 화물 자동차가 협동의 전야를 달리게 될 것이며 50만 정보의 토지가 새로 개간되고 20만 정보의 논 관개 면적이 확장됨으로써 알곡 생산량은 1967년에는 600~700만 톤에 달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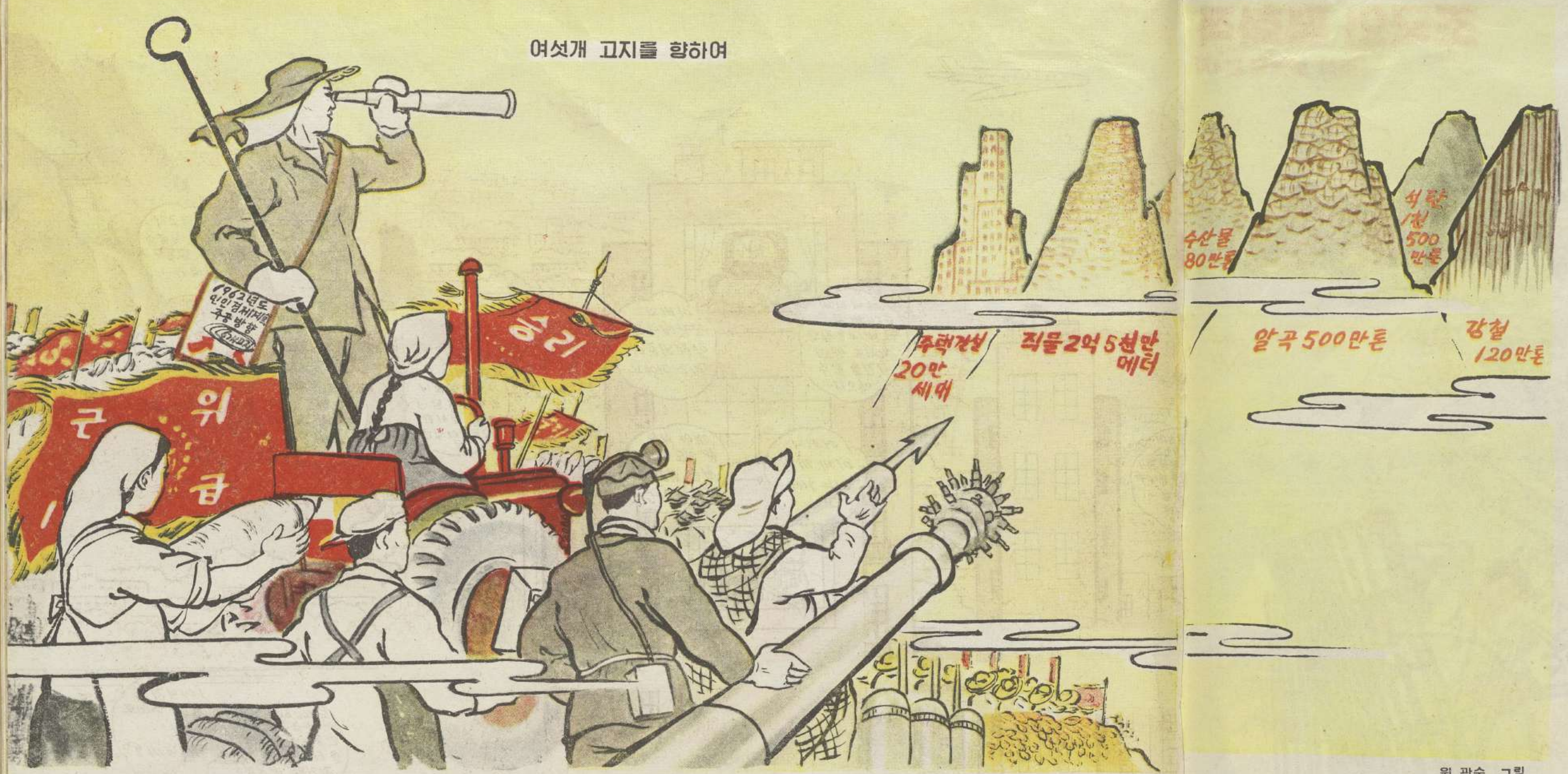
허 능택 그림

광활한 전망(3)



원 광수 그림

여섯개 고지를 향하여



원 광수 그림

남—여보 가까이 와서 좀 들어 보우

녀—어서 읽으시우 뭐라구 썼수

남—(읽는다)에 네가 군대 생활을 잘해서 입당까지 했다니 나보다두 네 어머니가 더 기뻐하누나…

녀—거 참 내 마음에 듭니다요

남—그저 늙어두 칭찬이면 좋다지! (읽는다) 금년에는 가는 곳마다 금파만경이요, 들리는 노래마다 풍년가라 나두 한가락 부를 터이니 들어 봐라. 그리구 네 어머니두 요새는 어깨가 으쓱해서 춤을 추며 돌아 가는데 팔을 놀리는 폴이 어른 같지도 않고 애 같지도 않아 혼자 보기는 아깝다구들 하더라…

녀—에구 망칙해라 령감두 그저 한다는 소리가…그래 당신의 얘긴 안 썼수?

남—내 얘기라니?

녀—많지 않수, 금년엔 술두 안 마시구 일을 잘해서 척 최고 점'수를 땄겠다…

남—그야 어련히 안 썼을라구(읽는다)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구 했거늘 그것도 옛소리고 지금은 천리마 시대라 네가 군대 나간지 2년만에 우리 마을도 천지가 변하여 산이 밭이 되고 밭이 논이 되여 앞들엔 만고 풍년을 약속하는 관개수 출렁이고 뒤'산엔 백파 주렁주렁 울긋불긋한데 기계들은 밤낮 앙앙…

녀—령감 또 망발이군 쯔쯔. 아니 그래 우리 조합 기계들이 밤낮 앙앙 울기만 한단 말이우?

남—누가 운데? 모르면 잠자코 듣구나 있을 게지. 로동 계급이 보내 준 뜨락또르, 자동차, 각종 농기계들이 앙소리를 내면서 우리 농민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시키구 있단 말인데! 어디 그 뿐이라구, 암소들도 직업을 바꾸어 사시장철 구수하구 시원한 우유만 척척 공급하구 있으니…

녀—호호호 됐수다 됐어, 어서 마자 읽기나 해요

남—(읽는다)더구나 농촌 곳곳마다 청산리 정신이 차고 넘쳐 그루마다 팔뚝 같은 옥수수요, 이삭마다 대추알 같은 벼가 물'결치니 보기만 해두 배가 부르구 생각만 해두 살이 절로 찌누나…

녀—참 류창하웨다

남—흥 귀'맛이 도는 모양이지(읽는다) 에 너두 들으면 놀라리라구 믿는다만 그새 네 어머니는 공부한 보람이 있어 나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두 제법 소설까지 읽구 있으니 이를테면 정신 농사에서두 풍년이 든 셈이로다…

녀—가만…아니 못하긴 뭐가 당신만 못하우. 요전 리당 위원장이 뭐라구 그랬수, 내가 쓴 보고문에 대해서 말이우.

남—뭐라긴 뭐래, 어림두 없는 소릴…백년가두 나하구야 황소하구 송아지 격이지

녀—어이구 내가 졌수다 졌어 쯔쯔…

남—정 그렇게 실큼하면 이 구절을 빼 치우자구

녀—놔 두시우. 기왕 그렇게 쓴 걸 빼게야 또 뭐유, 호호호

남—그렇다니, 속으룬 좋아하면서두…(읽는다) 금년에 우리집 분배 정형을 본다면 알곡이 여섯 톤 반에 현금은 천 3백원을 예견할 수 있는데 이미 8백원은 타다가 라지오를 한 대 사 왔고 또 어머니 선물로 울빼미 치마를…

녀—울빼미가 뭐유 오빠루지

남—오라…새빨간 오빠루 치마를 한 감 끊어 왔더니 나이 50에 그게 무슨 망팔이냐구 대뜸 롱속 깊이 간직해 두고 말았단다.

녀—여보, 그걸 그애 례장'감으루 지목해 뒀다구 밝히구려. 그리구 옥분이 얘기두 좀 하구

남—원 저렇게두 답답하다구야. 할말이 따루 있지 공연히 군대 나간 애를 싱숭생숭하게 만들려구…

녀—그래두 잔치 돼지까지 기르구 있는데…

남—글쎄 그런 말은 다 당치 않대두 그래 (읽는다) 앞으로 년간 총화를 하면 선참으로 수매 사업에 참가하여 여유 량곡 60 가마니를 국가에 바치고 현금으로는 재봉침을 사 오고 멋들어진 옷장도 마련할 작정이다. 그리구 팔뚝 시계나 고급 양복지 같은 것은 너와 의논해서 사는 것이 좋겠다는 네 어머니의 의견에 나도 100 프로 찬성이므로 저금을 해 두겠다.

이렇게 살림은 밀려드는 조수처럼 늘어만 가 너나없이 기와집 쓰고 이밥에 고기'국을 먹게 되였으니 이 어찌 지상락원이 아닐소냐! 이게 다 당의 은혜요 수상님의 덕분임을 생각하니 그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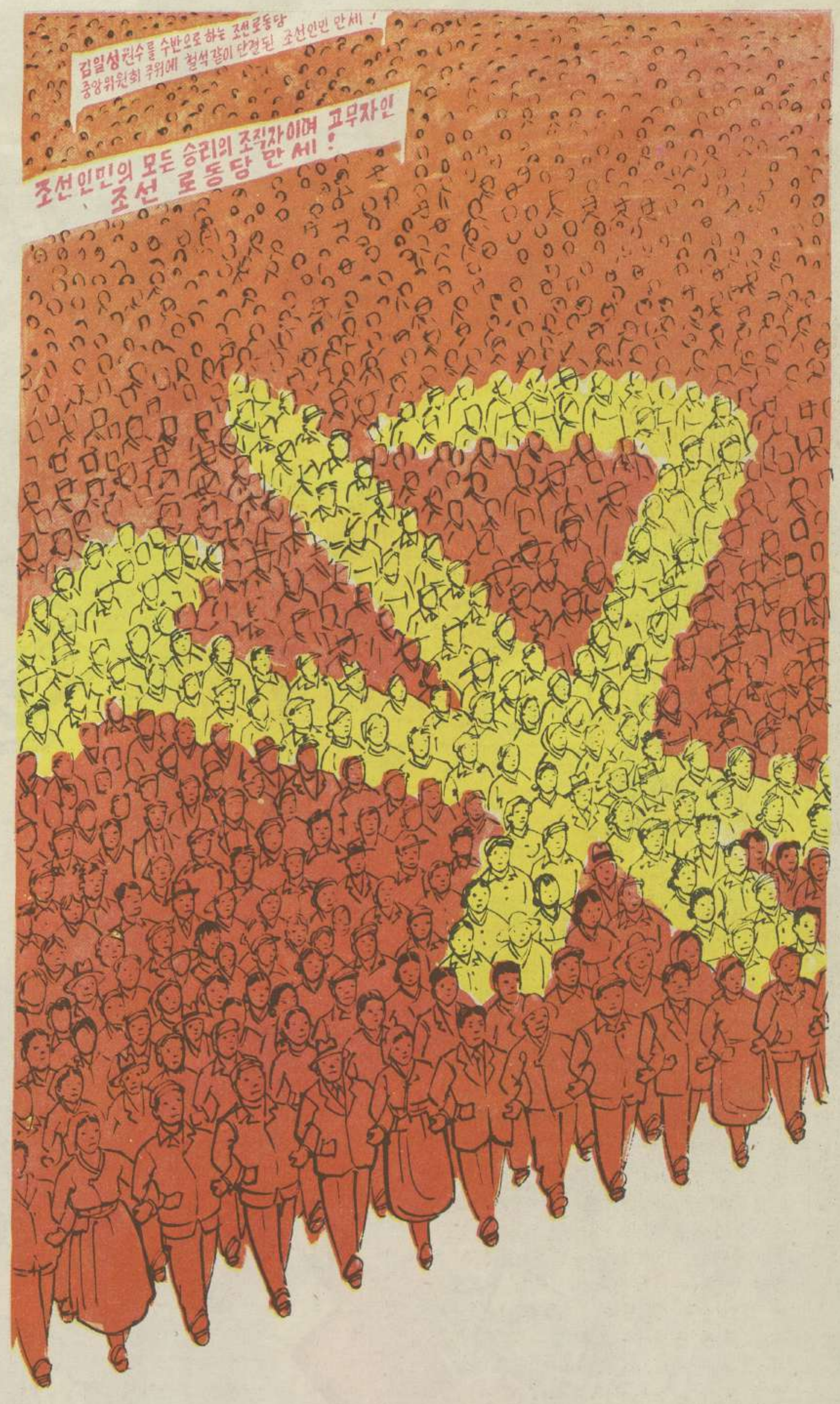
녀—말은 해서요, 그러기 밤낮 당신이 부르는 노래가 그게 아니요(시'조로)태산이 높다한들 당의 은덕에 비기랴, 바다가 깊다한들 수상님의 배려보다 깊으랴…

남—노래만 불러서야 되나,있는 힘 있는 정성 다하여 보답을 해야지(읽는다)네 어머니는 벌써 명년도 500 만톤 고지 점령을 위해서 되비산 마루까지 올라 갔단다. 나 역시 토지 정복 부대 성원으로서 만단의 준비가 다 되여 있다. 다음 소식은 500 만톤 고지 우에서 전하마 (안해에게) 자 이만하면 어때?

녀—과연 그럴듯 하웨다.

유 진용

한 마음 한 뜻으로



안 창수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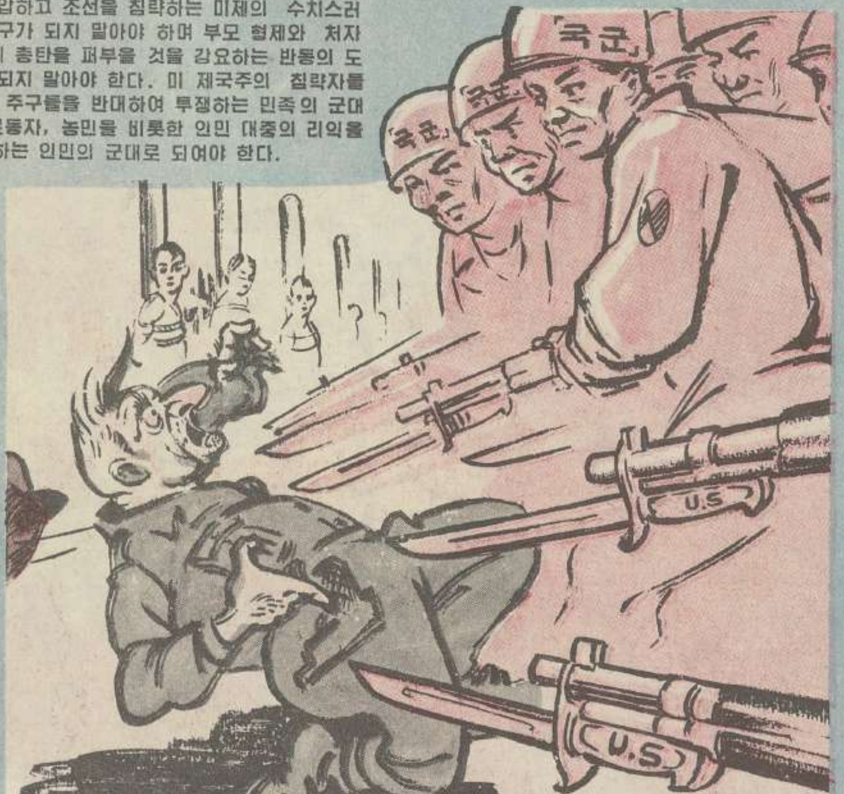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조선 로동당 제4차 대회 선언 중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서는 우선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고 미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를 철폐하여야 한다.

미제의 남조선 강점과 그 침략 정책은 조선의 평화적 통일과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의 근본 장애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 인민의 첫째 가는 투쟁 대상이며 조선 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이다.

남조선 《국군》은 남조선 인민의 애국적 운동을 탄압하고 조선을 침략하는 미제의 수치스러운 도구가 되지 말아야 하며 부모 형제와 처자들에게 총탄을 퍼부을 것을 강요하는 반동의 도구가 되지 말아야 한다.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민족의 군대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인민 대중의 리익을 옹호 하는 인민의 군대로 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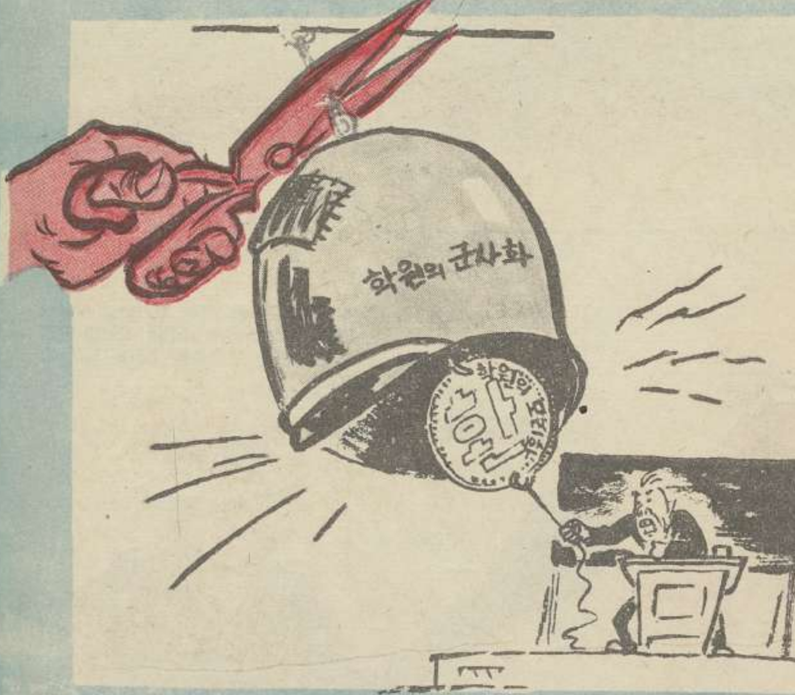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 파업 및 사상 생활의 완전한 자유와 모든 정당, 사회 단체들의 활동의 자유를 쟁취하여야한다.

토지 문제의 해결은 남조선에서 당면한 민주주의 혁명의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민주주의적 토지 개혁을 실시하여야만 남조선 주민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들이 봉건적인 착취에서 해방될 수 있으며 농업 생산이 발전할 수 있다.

민족 공업을 창설하여야만 경제의 자주적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다.

미제와 예속 자본가, 친미파, 민족 반역자들의 소유인 공장, 광산, 철도, 운수 및 은행을 몰수하여 국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며 중소 기업의 보호 육성을 요구하여야 한다.

남조선의 과학자, 문화인들은 민족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반동적이며 세기말적인 미국 문화의 침습을 반대하며 학술 연구 및 과학, 문화, 예술 활동의 자유와 그에 필요한 물질적 조건의 보장을 요구하여 나서야 한다.



청년 학생들과 전체 남조선 인민들은 민주주의적 민족 교육의 실시와 국가 부담에 의한 전반적인 초등 의무 교육제의 실시를 요구하며 학원의 민주화와 졸업생들의 완전 취업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남조선 녀성들은 천대와 멸시를 받는 굴욕적인 처지에서 벗어나 남성과 동등한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쟁취하며 모성과 아동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요구하여 나서야 한다.

우리의 투쟁은 우여 곡절을 겪고 있으나 조국 통일의 시기는 한 걸음 다가 오고 있다. 굳게 뭉쳐 억세게 투쟁하자! 그러면 미 제국주의자들은 물러 가고야 말 것이며 조국 통일의 위업은 달성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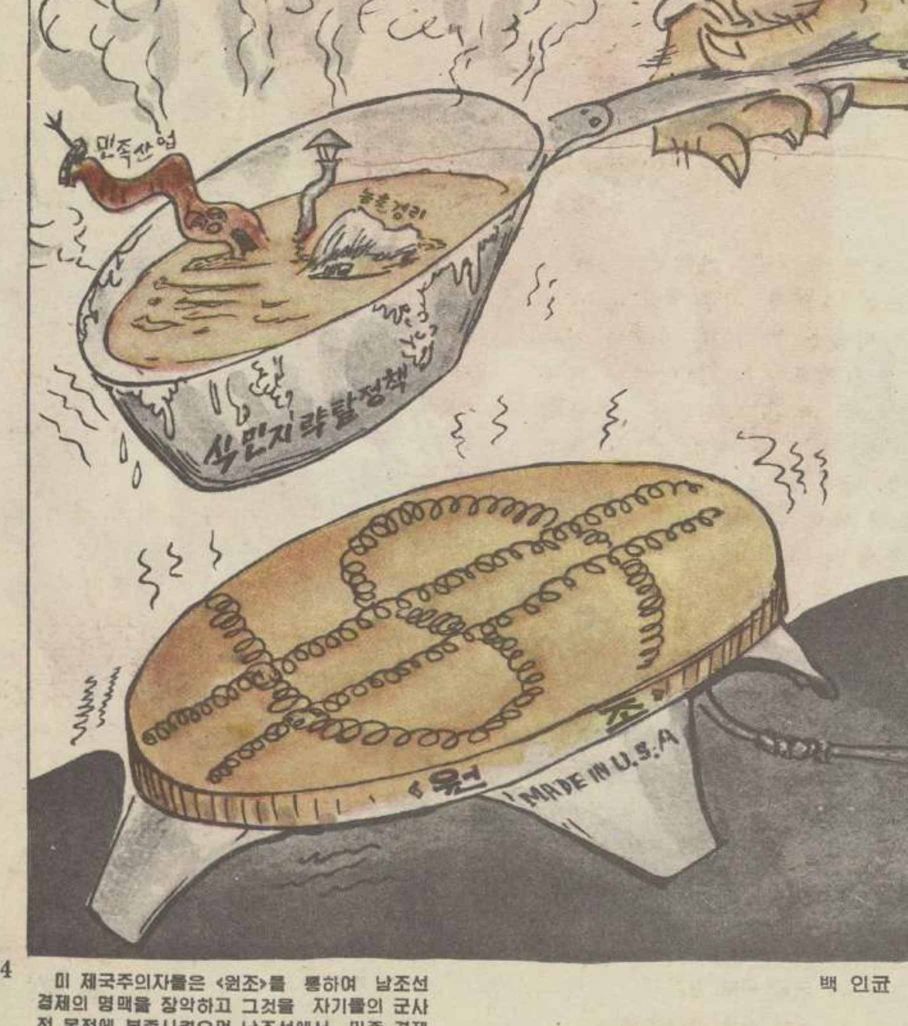
조 명식, 홍 종호, 김 성엽 그림

반미폭풍

미 제국주의자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가고 있는 남조선의 식민지 제도를 결코 구출할 수 없다.

백 인규 그림

남조선에서의 미국제 콘로



미 제국주의자들은 《원조》를 통하여 남조선 경제의 명맥을 장악하고 그것을 자기들의 군사적 목적에 복종시켰으며 남조선에서 민족 경제의 자주적 발전의 길을 완전 페쇄하였다.

백 인규 그림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자기들의 식민지로, 군사기지로 만들었으며 남조선 경제를 송두리채 파피하고 남조선 인민들을 기아와 빈궁 속에 몰아 넣었다.

화구의 조종자

백 인규 그림

발작하는 케네디의 광증

리 윤겸

전쟁 지랄병에 걸려 있는 케네디는 무슨 생각이 떠올랐던지 책상을 탁 치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러스크를 불렀다.

《국무 장관! 좋은 수가 생겼어, 군비의 대폭 증강에 대한 텔레비존 연설문에 „협상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써 넣는게 어때?》

《„협상"이요?! 각하! 우리가 쏘련과 책상에 마주 앉으면 그건 영락없이 우리의 패배로 끝날 것입니다. 우리가 쏘련과의 협상에서 말로 대결할 무슨 밑천이 있습니까. 포츠담 협정을 위반한 것도 우리요, 베르린 정세를 악화시킨 것도 군비 철폐에 관한 회담을 파탄시킨 것도 다름 아닌 미국이 아닙니까》

《으흐흐…이것 보오, 쏘련은 평화를 위하여 어떠한 가능성도 다 리용하고 있잖소, 우리는 그것을 리용하잔 말이요. 다시 말해서 „협상"을 내 걸고 뒤'구멍으로는 전쟁 준비를 하잔 말이요. 히히히》

그제야 러스크는 안도의 숨을 뽑으면서 《아멘》하고 가슴에 십자를 그었다.

《그런데 국무 장관! 일이 어떻게 되여 가고 있소?》

《예, 예, 각하! 만사가 제대로 척척 잘 돌아 가고 있습죠. 헤헤… 지하 핵 시험장을 만들기 위하여 몇 개의 탄광을 헐어 버린 사실도 알고 계십죠…》

《그리고 또 무엇이 있던가?》

《각하의 의도 대로 불란서와 원자 협정을 원만히 체결했고 서부 베를린에 보충적 무력과 무장도 반입했고요…》

《히히히》

케네디는 만족하다는 듯 선웃음을 지으면서 《과연 나의 국무 장관……저—모스크바의 반향이나 한번 들어 보지…라지오의 스위치나 좀 넣소!》

이른바 케네디는 미국이 전쟁 소동을 일으켰으니 쏘련에서 그 어떤《양보》라도 있으리라고 망상했던 것이다. 모스크바의 방송은 여전히 공산주의 건설, 평화 친선 등 활기찬 뉴스를 알리였다. 이윽고 방송은 핵 무기의 시험 폭발을 진행할 데 관한 쏘련 정부의 성명을 전하였다. 쏘련 정부는 미제를 비롯한 서부 렬강 침략 계층의 발광적인 군비 확장과 전쟁 도발로 말미암아 조성된 현 정세를 분석하고 그들의 전쟁 광증을 제어하며 도발적 모험을 격퇴할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을 천명하면서 심사 숙고의 결과 쏘련에서 핵 무기의 시험 폭발을 진행하기로 결정 하였다고 언명 하였다《…쏘련에서는 큰 위력을 가진 티 엔 티 2천만, 3천만, 5천만 및 1억 톤 급의 핵 폭탄 시험 계획이 작성되였으며 또한 유. 아 가가린 소좌와 게. 에쓰. 찌또브 소좌가 지구 주위에 대한 전례없는 우주 비행을 하는 데 사용한 것과 같은 강 유력한 로케트들은 쏘련이나 기타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하여 침공을 감행할 수 있는 지구상의 그 어떤 거점에라도 그와 같은 핵 폭탄을 날려 보낼 수 있다》

라지오를 듣던 케네디는 벼란간 당장 꺼지는 얼음장 우에 선 황소 꼴이 됐다. 그는 간신히 목 소리를 짜 내듯

《이게 무슨 소리냐? 내 귀가 잘못 되지나 않았나?》

《아니 올시다 귀는 각하의 노랑머리 밑에 정확히 붙어 있습니다》

《이 놈아 1억 톤급 원자탄의 위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나 지껄이냐?!》

《예 아다 뿐이겠습니까! 그저 대서양에 하나 떨어지면 영국 같은 섬 나라는 순식간에 물'속으로 자무락질하고 만다니까요!》

《그놈의 위력이 그렇게도 센가? 응》

《그 빌어먹을 《워스또크— 2호》는 이보다 더 무거운 원자탄도 능히 운반 할 수 있다니까요!…》

《뭐뭐뭐 이놈아 잡교대를 하지 말어,》

케네디는 새'파랗게 질려서 전신을 가늠하지 못했다.

라지오에서 계속 더 큰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백악관을 들었다 놓는다.

《침략자들은 자기 자신의 소굴에서 보복의 무기를 벗어날 수 없으리라는 것을 깨닫아야 한다》

《이 이놈아 저 저 스위치를 끄지 못할가》

케네디는 외마디를 남기고 마루 바닥에 졸도 했다.

《어쩌면 덜레스 각하의 림종 시기와 딱 같은고?!》

러스크는 넘어진 케네디를 보고 중얼거렸다.

열병 환자의 머리는 식혀 주어야 한다

최 영근 그림

편집 위원회

발행 국립 미술 출판사 ㄱ—25893 (값 40 전)

인쇄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발행 1961. 10. 20

《미제의 남조선 강점과 그 침략 정책은 조선의 평화적 통일과 남조선 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의 근본 장애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 인민의 첫째가는 투쟁 대상이며 조선 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이다. 남북 조선의 일체 애국적 력량은 일치 단결하여 미 제국주의자들을 우리 조국 강토에서 철거시키고 나라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민족 해방 투쟁에 나서야 한다》.

(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 선언 중에서)

DUPLICATE
DIVISION OF ORIENTALIA
95
dup